

EU의 전파관리 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통신방송연구실 주임연구원 이승훈
(T. 570-4491, sky@kisdi.re.kr)

1. 서론

전파자원은 통신, 방송, 운송, 국방, 안전, 과학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의 주요 자원(resource)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주파수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사용은 EU의 성장, 경쟁, 고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주파수 배분과 이용의 비효율은 비용을 유발하고, 사업과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할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EU의 주파수 정책은 무선서비스와 장비에 대하여 하나의 진정한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는 i2010 추진(initiative)의 일부로 일관된 EU 전파정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이용에 있어 점진적이지만 체계적인 완화(liberalisation)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EU의 주파수 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002년 3월, EU차원의 전파정책 규제체계에 관한 결의안이(Radio Spectrum Decision) 채택되었으며, 2004년에 발표된 EU의 전파정책에 관한 1차 보고서에서는 전파자원의 관리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EU 회원국들은 경쟁력 증가와 혁신 장려를 위하여 주파수 관리에 유연성(flexi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 개선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정책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파수 시장 도입과 디지털 TV 전환 등과 같은 중요한 전파관리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무선 인터넷 연결과 자동차 충돌방지 시스템 지원, 국제 협상 지원, 주파수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공동방안(harmonisation measures)을 마련하였다.

한편, EU는 일반 대중, 중소기업, 가정에서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폭넓은 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 건설을 포함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EU는 경쟁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무선통신의 발전과 전파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U는 전파관리제도 개선으로 유럽 전체 차원에서 많은 이익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원국 개별적인 개선보다는 EU 차원에서 하나의 단일 서비스 및 기기 시장을 고려하여 공동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할 경우,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큰 규모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1〉 EU 주파수 정책 관련 실행(actions) 시기

연도	주요 내용
2006년	- e-communication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대역에 일관된 유연성 제안 - 주파수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권(usage rights)의 공통양식 제안
	공동방안(Harmonisation measures) - “IMT-2000 확장 대역”의 사용을 조율하는 EC 결정 채택 - UWB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조율하는 하나 또는 이상의 EC 결정 채택 - SRD(Short-Range Devices)용 주파수 조율체계 마련을 위한 EC 결정 채택 - ERMES 지침 폐지와 기존 무선호출 대역 사용을 조율하는 EC 결정 채택
2007년	- '02 e-communications 규제체계 재검토(면허 포함)에서 전파 이슈 제안 - ITU RRC-06 관련 방송 분야 용도 조정에 대한 제안 - 면허 면제 주파수에 대한 EU 접근방식 소개 - 간섭관리 절차의 개선 실행 - ITU WRC-07 회의를 위한 EU 우선사항(priorities) 설정
	공동방안(Harmonisation measures) - 광대역 무선접속과 이동위성 애플리케이션 주파수 확인 및 조율 - 보조와 의료 무선 애플리케이션 주파수 확인 및 조율 - 지능형 자동차를 위한 무선 애플리케이션 주파수 확인 및 조율
2008년	- ITU WRC-07 회의 결과를 EU에 도입하기 위한 조정
2009년	- 새로운 e-communications 규정을 각 회원국에서 실행
2010년	- 주요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EU차원에서 시장(market) 기능 구현
2012년	- EU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으로 제안한 시기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 Forward-looking Radio Spectrum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 Second annual report”, 2005. 6

전통적으로 주파수는 세부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통해 배분되었다. 그러나 전파이용이 확대되고, 전파이용 기술이 급변함에 보다 유연한 전파관리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장원리를 이용한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이용자에게 간섭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같은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모형의 전파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EU는 다양한 주파수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발전 속도, 간섭 관리, 서비스 품질, 기술혁신 장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하여 EU는 구체적인 실행시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회원국과의 조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GSM과 3G, PAMR 등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WLL, BWA, 마이크로웨이브 링크용 주파수, 지역 및 전국 방송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등에 대하여 주파수 거래와 같은 시장원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주파수 시장(markets)을 도입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조하면서 주파수 이용권 및 용도 명확화, 주파수 거래절차 마련, 주파수 이용현황 정보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3. 결 론

EU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통된 정책과 규제를 기반으로 단일한 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의 도입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의 전파관리 정책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규제기관 중심의 관리제도에서 시장기반의 관리제도 및 기술 중심의 공유모형 관리제도 등 다양한 전파관리제도의 도입 및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 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주파수 시장의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여, 회원국들도 주파수 시장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각각의 회원국들의 전파관리제도가 다양함에 따라 통합된 정책 및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단일한 시장의 형성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및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와 EU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 Forward-looking Radio Spectrum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 Second annual report”, 2005. 6

[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 market-based approach to spectrum management in the European Union”, 2005. 9

eBay의 Skype 인수배경 및 향후 전망

공정경쟁연구실 연구원 김민정
(T. 570-4093, mintkim@kisdi.re.kr)

1. 개요

온라인 옥션 시장의 선두적인 사업자인 이베이(eBay)가 2005년 9월 스카이프(Skype)를 \$26억에 인수합병하였다. 향후 이베이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스카이프를 인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통화가 무료로 제공되는 Skype를 인수하는 데에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야후, 구글과 같은 포탈 사업자들이 사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시장에 진입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 이베이는 새로운 상품개발 및 국제시장을 발굴해야 한다는 인수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26억라는 가격표를 단 스카이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수익모델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이베이 미래사업의 관건이 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베이와 스카이프의 사업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 인수합병에 대한 배경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이베이(eBay)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현황

1995년에 설립된 이베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중개사업자이다. 지역, 국가, 전 세계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eBay Marketplace), 온라인 결제대행 시스템인 페이팔(Paypal)¹⁾, 생활광고 사이트인 키지지(Kijiji), 온라인 아파트 렌탈 서비스인 Rent.com, 쇼핑 사이트인

1) 소비자가 Paypal로 결제를 하면, Paypal이 소비자의 카드사에 결제 승인 요청을 하게 되고, 승인이 떨어지면 Paypal이 결제를 대행해 주는 시스템